

(2008. 4.4. KDI 산업기업전략세미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KIEP 중국팀 지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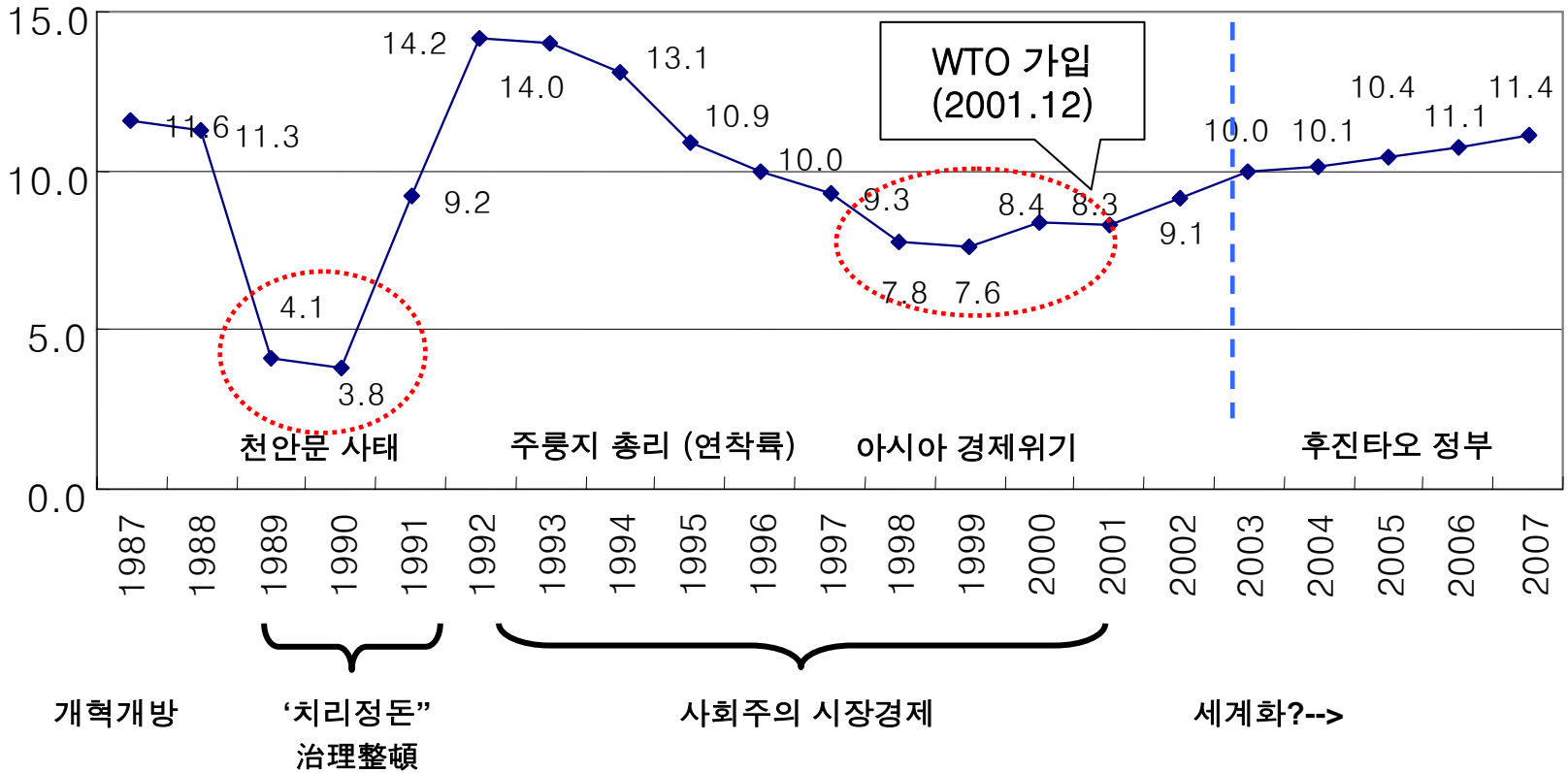
jmansoo@kiep.go.kr

<http://CSF.kiep.go.kr>

개혁개방과 장기고도성장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06년까지 연평균 9.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그 결과 2006년 GDP는 1978년의 13.3배에 달함.

중국의 개혁과 경제성장



1992년 이후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2003년(후진타오 정부)부터 10% 이상 성장

중국 경제성장의 특징 : 새로운 Soft Power?

중국의 경제성장은 1) 30년간의 고도성장 외에도 2) 개방형 성장, 3) 전방위적 산업발전, 4) 대국형 성장 등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특징	구성요소	의미
장기 고도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79~06년 연평균 9.6% 성장 1992년 이후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2003년 이후 10% 대 성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안정 유지 세계 3위의 경제로 성장 개도국형 사회보장체제 시도 Soft Power의 형성 (모델?)
개방형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FDI 유치누계 7,000억 달러 외자기업 수출 비중 58.2%(2006) 무역의존도 33.9%(92)→67.3%(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의 공장 → 세계의 시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허브 최근 자주혁신을 강조
전방위적 산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집약 산업에서 세계의 공장 중화학공업 59.1%(85) → 58.1%(06) 첨단 FDI: 시장/기술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집약 = 고용창출 풍부/저렴한 자본 기술흡수의 미시적 주체(?)
대국형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분야 양적으로 세계 1위 (생산, 소비, 외환보유고 등) 규모의 경제와 치열한 경쟁의 공존 국제가격구조 변화(에너지, 원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업 수익성 악화 규모의 경제(기업, R&D) 발전경제론의 인식 한계

중국의 장기성장동력: 발전의 지체가 남겨둔 공간

중국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장기적 성장동력/공간이 다양하게 남아 있어 상당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ex '2020까지 연평균 8% 이상': Carnegie 재단 +DRC, 2007)

새로운 성장 동력의 후보군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 성장

- 동부 연해 지역은 국제분업구조 동참을 매개로 한 고도화 지속
- 중부 내륙은 내수형 산업 육성
- 서부 지역 자원 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

- 낙후되었으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큼
고용비중: 한국 1980년 43.5%
중국 90년 18.5%, 01년 27.7%, 06년 32.2%
-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급성장 가능성

제도혁신 공간 존재

- 자본시장의 발전
- 민영기업의 금융활용 가능성
- 기업 퇴출의 본격화
- 중국형 과학기술혁신체제의 등장

도시화 : 소비창출, 노동력 공급

- 도시화율 06년 43.9%, 2020년 60.3%
(매년 1,300만 도시인구 형성)
- 내수 확대와 농촌 문제 동시 해결
- 상당기간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 유지
- 장기적으로 임금상승 요인(주거, 교육)

새로운 과제, 새로운 이념: 과학적 발전관

2007년 당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이라는 개념이 공산당 당헌에 삽입되면서 공식 이념으로 등장

중국 경제의 지도 이념, 슬로건

구호	내용	의미
개혁개방 사회주의 시장경제 (1978~)	덩샤오핑이 주창 先富論, 실용주의, 점진주의	시장화, 세계화 이행경제의 모델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3개대표론 (2002)	장쩌민이 주창 선진 생산력 선진 문화의 발전방향 광범한 대중의 근본이익 을 공산당이 대표	사회주의 이념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과도기적 이론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고민
과학적 발전관 (2007)	후진타오가 주창 인간중심의 전면적, 협조(協 調), 지속가능 발전관	개혁개방의 사실상 완성 경제 유형의 문제 대규모 개방경제의 고민 ‘경제사’ 수준의 관심

한국과 중국 : Opportunity, Threat, Risk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대두되었으며, 2007년 수출액은 820억 달러, 수입은 630억 달러, 교역량은 1,450억 달러

대 중 교 역

단위 : 백만 달러

	수출	성장률	수입	성장률	교역총액	무역수지	수출비중	교역비중
1992년	2,654	164.7	3,725	8.3	6379	-1071	3.5%	4.0%
1995년	9,144	47.4	7,401	35.5	16545	1743	7.3%	6.4%
2000년	18,455	34.9	12,799	44.3	31254	5656	10.7%	9.4%
2001년	18,190	-1.4	13,303	3.9	31493	4887	12.1%	10.8%
2002년	23,754	30.6	17,400	30.8	41154	6354	14.6%	13.1%
2003년	35,110	47.8	21,909	25.9	57019	13201	18.1%	15.3%
2004년	49,763	41.7	29,585	35.0	79348	20178	19.6%	16.6%
2005년	61,915	24.4	38,648	30.6	100,563	23,267	21.8%	18.4%
2006년	69,400	12.2	48,500	25.6	117,900	20,900	21.3%	18.6%

- 2007년 수출시장 중국 의존도 22.1% (중국시장 > 미국시장 + 일본시장)
- 2007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
- 2006년부터 수출 증가율 둔화, 무역수지 흑자 감소

한국과 중국 : Opportunity, Threat, Risk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고 있음

대중 교역의 특징: 가공단계 및 무역방식

단위 : 백만 달러

가공단계별 수출(%)	2001	2007
1차산품	0.4	0.8
중간재	83.4	76.8
반제품	64.0	41.3
부품·부분품	19.5	35.6
최종재	16.2	22.3
자본재	11.1	19.4
소비재	5.1	2.9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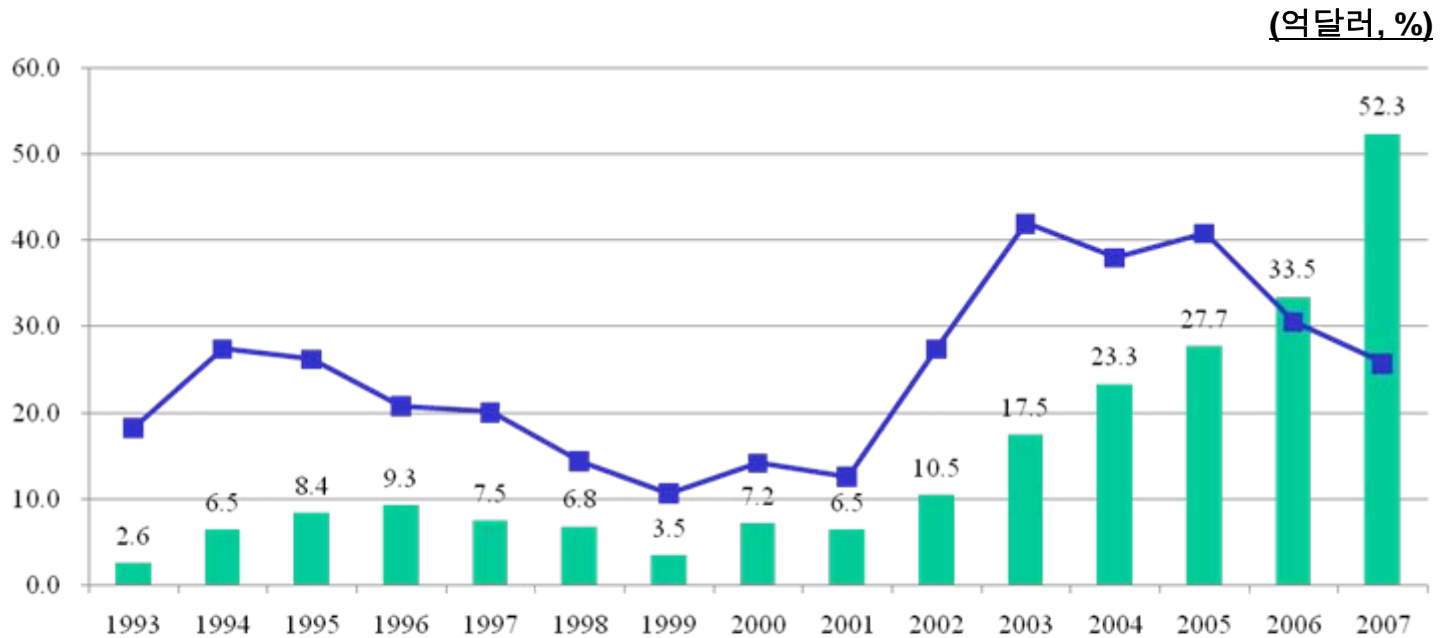
무역방식 구분	대중국 수출(%)	
	2001	2006
일반무역	37.8	29.1
가공무역	53.7	54.6
투자용 설비 및 물품	4.3	2.4
보세가공무역	4.1	13.8
기 타	0.1	0.0

중국해관통계

한국과 중국 : Opportunity, Threat, Risk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중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음.

대중투자 총액과 비율



-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04 한, 05,06일, 07 한)
- 노동력과 토지, 시장, 집적

한국과 중국 : Opportunity, Threat, Risk

한국이 중국에서 누려온 경제적 이익은 단순한 양국간 경제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중국의 등장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형성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의 산물임.

기회의 이해 : 새로운 분업구조의 결과

Challenges

Key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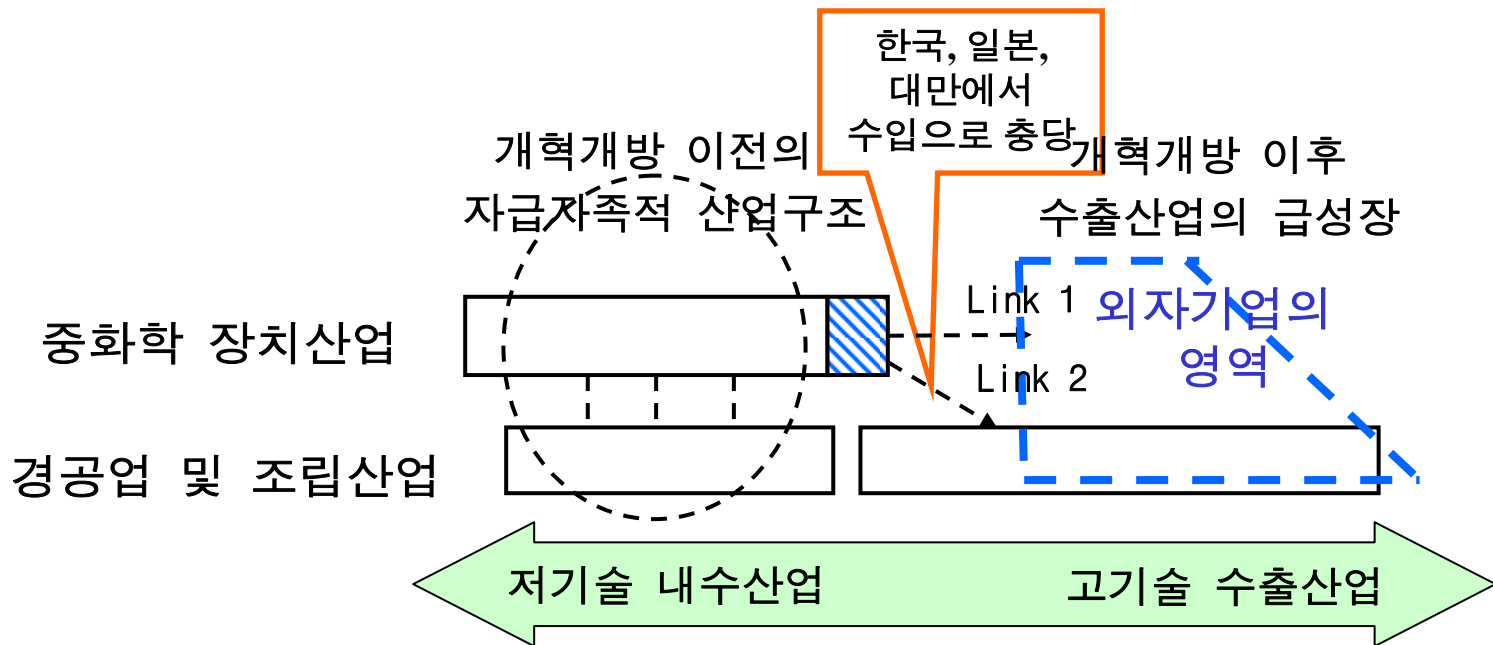
Strategies

Opportunity

중국의 고도성장
편승

- 79~2005년 사이 연 평균 9.6% 성장
- 중국의 성장은 “개방형 전방위적 성장”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가 발생
- 중국을 허브로 한 세계적 분업구조 형성

- 중국보다 국제 분업구조에 주목
- 거대분산시장 → 집중된 시장



한국과 중국 : Opportunity, Threat, Risk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성장이 진행될 것이나, 당면한 더욱 긴박한 위협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Input활용 경쟁**에서 뒤지는 것임.

위협의 이해: Output이 아니라 Input

Challenges

Key Elements

Strategies

Threat

샌드위치 論
산업공동화 우려

- 산업고도화와 기업성장이 진정한 위협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 실현)
- 현실은 made in China made by global
- output 아닌 input 활용 경쟁

- 중국의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 중국을 활용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 중국의 산업고도화의 주체가 되는 전략
- 거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FTA 고려

2006년 중국의 산업생산 중

컴퓨터	94.6%
전자부품	85.3%
통신설비	79.7%
정밀기기	66.4%

가 외자기업에 의해 생산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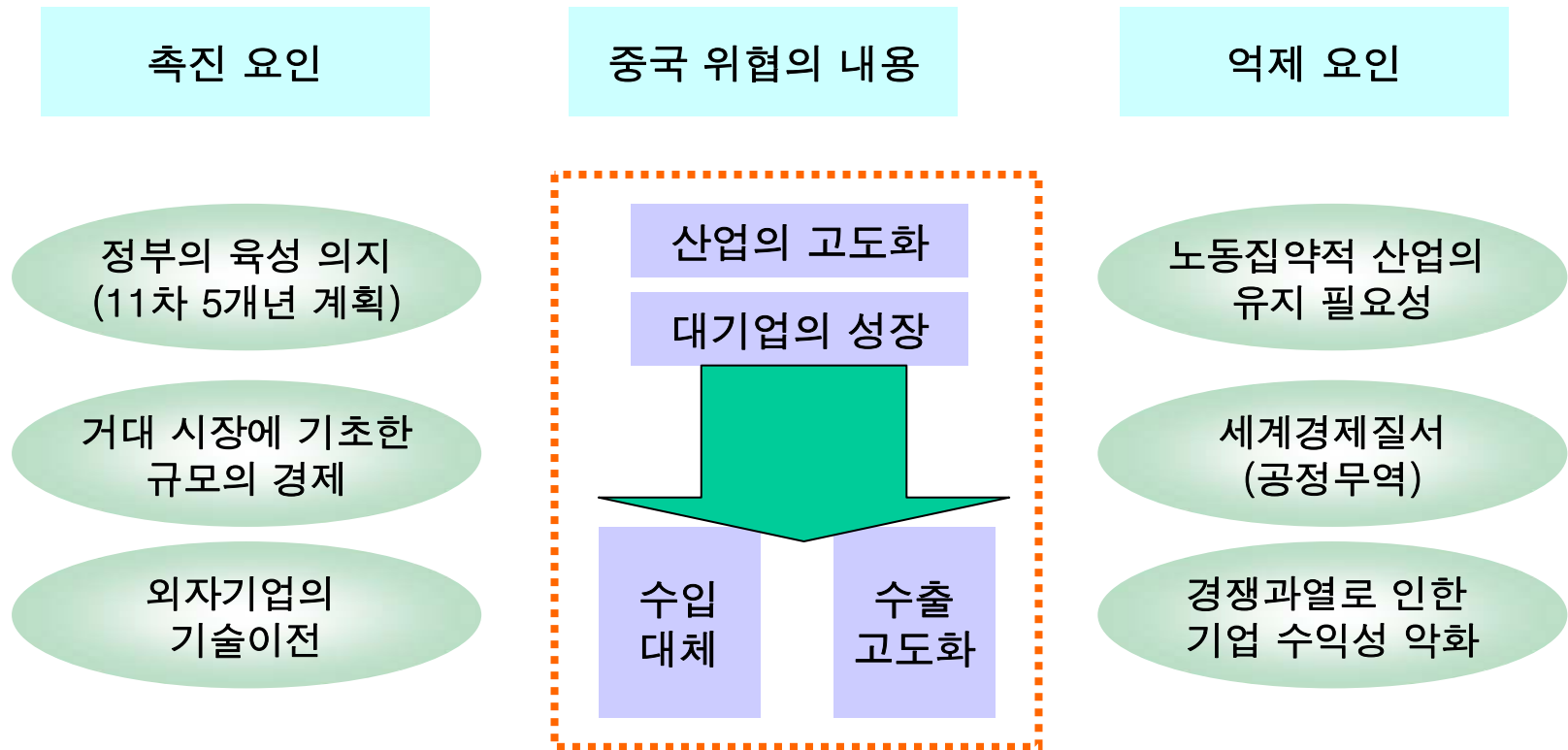
1992년	20.4%
1999년	45.5%
2006년	58.2%

- 2005년 중국 수출 20대 기업 중 외자기업이 14개, 석유관련 기업 4개, 수출입업 1개로 순수한 중국 제조업 기업은 普天통신 1개 뿐임. 반면 2005년 수출 1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이 10개(삼성 6, LG 4)

한국과 중국 : Opportunity, Threat, Risk

그러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기업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중국 위협의 촉진 요인과 억제요인



한국과 중국 : Opportunity, Threat, Risk

중국의 구조적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산 버블의 붕괴의 가능성이나, 중국에서 비롯되는 국제경제 질서의 장기적 변화가능성 등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위험의 이해 : 새로운 불확실성의 등장

Challenges

Key Elements

Strategies

Risk

대중 의존도 심화

- 2004 년 이후 수출시장 의존도 20% 선
- 중국 경제에는 다양한 불확실 요인 존재
ex) 제도변화, 위안화, 부실채권
- 최근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

- 모니터링의 강화
- 시스템 경쟁 및 경제위기 역발상
- 국제규범의 변화 방향에 유의

기존의 위험 요인

- 부실채권 비율 감소 (2000년 29.2% -> 07년 3월 7.0%)
- 위안화 절상은 한국 경제에 호재

일본형 위험의 가능성

- 주가급등 등 자산가격 불안
상해지수 : 05 말 1,220pt -> 07 말 6,000pt -> 08.3 3,500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 통상질서: 새로운 '공정무역'의 제도화 가능성
(제품안전성, 노동, 지적재산권, 환경규범, 경제안보)
- 통화질서: 달러화 체제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

중국의 경제성장과 세계 : Globalization of, with, by China

중국은 ‘세계화’의 선별적 수용을 완료하고, 국제 통상 질서에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New Participation of China

BRICs

- 발전도상국 중에서 대규모 개방경제 출현
- 진정한 ‘글로벌’ 이슈 등장: 에너지, 환경

New Structure with China

GPN with China
(Global Production Network)

- 기업차원의 GPN
-> 새로운 국제분업구조 형성
- 중국은 동아시아 GPN의 허브
- 동아시아 세계의 공장이 형성

New Phenomena by China

Regionalism

- 동아시아의 실질적 경제통합 진전
- 통합의 제도화 논의 및 중-미-일의 정치학

Global Imbalance

- 중국의 책임감 이슈(responsible stakeholder)
- 공정무역 이슈: Fair trade Vs. Free trade
- 국제통화체제의 변화 모색 가능성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와 과제

변화의 기본 방향

앞으로의 변화는 중국의 대국화, 한국의 선진국화라는 양국의 세계경제 내의 위상변화에 의해 촉발될 것임.

한중 FTA

추진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확대라는 관점이 아니라, 동북아 분업구조 속에서 양국간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cf 근본적인 질문: '잘 되고 있는데, 왜 그 많은 어려움을?')
동북아 경제통합이라는 전략적 시각에서 중국의 양보를 촉구

대중투자

비용절감형에서 시장개척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양해야 함.
비용절감: 노동력과 토지 외에 새롭게 출현하는 중국의 경쟁력에 주목
(GPN의 hub化에서 비롯되는 부품경쟁력, 적기 조달, 집적의 이익 등)
시장개척: 소비자 시장이 아닌 생산자 시장에 주목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이 걸어온 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였음.
(한국의 고도성장과 구조조정 경험 적용 가능)
그러나 대국화된 중국의 미래나 중국이 초래하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이 갖고 있는 경험적 상상력을 벗어나는 것이며, 양국관계를 글로벌한 틀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